

설치 작업은 기억과 가장 유사한 주파수를 지닌다.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으로 남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장면, 빛, 공기의 밀도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몸 어딘가에 각인되어 불쑥 되돌아온다. 한정된 시공간 안에서만 존재하다가 전시가 끝나면 해체되는 설치도 그런 방식으로 머문다. 그것은 어떤 순간을 통과하게 만드는 일이고,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붙들어두는 일이다.

독일 예술대학교 시절, 입체와 설치를 다루던 반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공간과 시간의 문제였다. 작업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관객이 어떤 거리에서 그것을 만나는지, 과정의 흔적들이 어떻게 하나의 장면으로 조직되는지에 대해 오래 토론했다. 그때 설치의 유용한지 무용한지를 먼저 따지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존재했다.

특히 2013년 여름의 과제전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당시 나는 흙으로 만든 수건 형태를 설치의 요소로 사용했다. 전시 기간 내내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분무기로 물을 뿌리며 돌보았고, 전시가 끝난 뒤 그것들은 모두 부서졌다. 그때의 나는 소멸이 아쉬워 테라코타로 구워 보존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런데 교수는 이 작업의 핵심이 형태의 보존이 아니라 시간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오래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잠시 어떤 상태로 존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경험 이후, 설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사라질 것을 한동안 붙들어두는 일을 떠올리게 되었다. 설치의 완성된 형태를 공간에 놓는 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장소의 빛, 벽과 바닥의 비율, 관객이 지나갈 동선, 작품과 작품 사이의 간격 속에서 잠시 모습을 갖는 일이다.

그래서 큰 구조와 방향은 미리 준비하되, 가능한 조건 안에서는 현장에서 조율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둔다. 전시장에 머무를 시간과 설치 과정의 자유도가 주어질 때, 도면 위에서는 식별할 수 없는 관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오직 공간에 들어가 몸으로 맞닥뜨려야만 확인되는 관계다.

2024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에서의 개인전 《흰 오리는 풀과 바람 사이...》는 이 방법론을 시험한 무대였다. 당시 나는 작품과 유닛의 대부분을 작업실에서 준비한 채 전시장으로 향했다. 열흘이라는 설치 기간 동안 전시장에 머물며 사루비아의 건축적 요소들을 관찰했고, 무관해 보이던 종이 조각과 오브제 파편들을 공간 구조와 맞물리게 하며 나머지 조형적 질서를 채워 나갔다. 그것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균형을 이루는 어떤 임계점을 붙잡는 일였고, 파편들을 하나의 구조로 단단하게 묶어내는 응집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2026년 아트사이드 템포리에서의 《나이없는 계절》은 여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전이 응집의 임계점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여러 물질과 조각들을 하나의 팔레트처럼 펼쳐놓고, 덩어리가 되기 전과 후의 상태를 공간 위에 느슨하게 드로잉하듯 이어간다. 벽과 바닥, 작품 간의 간격,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선들이 떠오른다. 나는 사물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인지적 선을 따라 배치를 미세하게 조율한다. 어떤 유닛은 조금 더 전면으로 나와야 하고, 어떤 요소는 살짝 비껴서야 한다. 또 어떤 빈자리는 그냥 비어 있는 편이 낫다. 이 판단은 이성적 논리도, 완전히 통제된 계획도 아니다. 몸 안에 축적된 감각이 현장의 공기를 읽어내는 순간이다.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작품을 배치한다기보다, 공간 안에서 사물들 사이의 리듬을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작품을 옮기고, 물려서고, 다시 걷고, 방향을 바꾸는 과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즉흥적인 안무와 닮아 있다. 독립된 사물들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각자의 박자와 간격을 갖기 시작한다. 어떤 흐름은 늦추고, 어떤 곳은 열어둔다. 지나치게 설명되는 부분은 덜어낸다.

전시는 끝나고, 물리적인 요소들은 다시 사라진다. 그러나 그 사이를 지나갔던 움직임, 잠시 멈추었던 시선, 작품들 사이에 생겼던 보이지 않는 선은 어딘가에 남는다. 설치는 그렇게 사라지는 형식 안에서, 잠시 존재했던 시간의 리듬을 남긴다.



Wäscheton, 2013